새벽되면 주점 가는 젊은이들…광주 유흥가 꼼수영업 기승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에 새벽 5시 문 여는 '올빼미 주점' 늘어
구시청·상무지구 일대 20대들 코로나 불감증 속 곳곳 술자리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안지켜…순천시는 '낮술 금지' 행정명령

4일 새벽 5시 10분께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 한 술집에는 귀가하지 않고 있거나 새벽에 집에서 나와 술집을 찾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4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동구 구시청 사거리. 평소라면 문을 닫을 시각인데도, 일대 주점 곳곳은 불을 환하게 켜고 손님을 맞았다. 영업 사실을 알리려는 듯 새벽시간이지만 빠른 템포의 음악소리가 울려퍼졌고 문을 열자 마자 음악에 맞춰 젊은 남녀들이 주점에 발을 들여놓았다. 비슷한 시각 서구 상무지구. 새벽 5시가 되자 주점 간판 불이 잇따라 켜지며 일순간 어두컴컴하고 조용했던 일대가 노래소리로 가득찼다. 기다렸다는 듯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줄지어 주점으로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가 연장된 이후 돌아본 광주 도심의 첫 월요일 새벽 풍경이었다.

모두 잠든 새벽시간이 도심 유흥가가 젊은층의 '코로나 통금 해방시간' 으로 바뀌었다. 젊은층이 식당과 주점의 9시 이후 야간 매장 영업을 완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끝나는 '틈새' 시각에 영업을 하는 주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PC방 등에서 머무르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문을 여는 주점을 찾아 '밤술' 을 즐기는 젊은층들이 늘어나면서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문을 여는 '올빼미' 주점도 많아지고 있다.

이날 둘러본 광주시 동구 구시청 일대는 '새벽술' 을 즐기는 20대 젊은 남녀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손님들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는 듯 무더기로 입장했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때문인지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식당·주점의 경우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임에도 버젓이 6명이 한 테이블을 차지하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술잔을 비우고 있었다. 마스크를 써달라거나 5명 착석은 안된다고 제지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닿은 친구들도 잇따라 주점을 찾았다. SNS 상에서는 이 일대 주점의 경우 새해 첫날 갓 스무살이 된 젊은층들까지 몰리면서 '만석' 을 이뤘다는 홍보글까지 퍼날라졌다.

상무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새벽 5시가 되자 느닷없이 간판에 불이 켜지더니 적막하던 상무지구 일대에 음악 소리가 울려퍼졌다. '새벽 5시부터 정상영업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술집에는 시간에 맞춰 20대 여성들과 남성들이 들어갔다.

상무지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시기에 맞춰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영업을 하는 주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환한 대낮, 술을 마시는 것보다 밤이 술 마시는 분위기가 낫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층들이 새벽시각을 이용해 주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해부터 성년이 된 수험생들의 경우 시험 스트레스를 해소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다, PC방 등에서 새벽까지 노는 경우가 많아 올빼미 주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행태로 방역망이 뚫릴 것을 우려해 '낮술 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주점들의 '꼼수' 영업과 '낮술' 족의 방역 지침 미준수 사태를 우려,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4일부터 2주간 식당·주점에서 새벽 5시~오후 4시까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행정명령 시간대를 교묘하게 벗어난 새벽 5시에 식당을 운영하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이슈화되면서 비판이 터져나온 뒤 취한 조치라는 게 순천시 설명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번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만 보더라도 개인들의 안일함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았냐"며 "함께 인내하고 개개인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는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 시장 '핫' 한데…광주 이례적 청약 미달 왜?

선교지구 우방아이유쉘아파트
첫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불구 미달
인구 유입 기대했던 동구 '당혹'

'청약 광풍' 이 불고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는 건 광주도 예외가 아니다. 당첨만 받으면 수천만~수억원까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라는 인식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는 분양할 때마다 청약경쟁률은 수백대 1까지 치솟았다. 외지인들의 투자 열기까지 가세하면서 일부 아파트 가격은 한 달 사이 수억원 이상 오르는 등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달 광주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였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 간 공급되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이런 '핫' 한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광주시 동구 선교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하는 우방아이유쉘아파트로, 서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59㎡과 84㎡ 일부 세대가 1:1 경쟁률을 채우지 못했다. 이미 1차 공급 물량(490세대)이 완판된 것과도 사뭇 대조적이다.

광주에서 최초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3.3㎡당 900만원대 분양가로 공급된데다, 자치단체가 개발해 공급하는 공공 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인 점, 국공립 어린이집·돌봄센터가 함께 들어서는 장점을 갖췄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계약금이 10%도 안되지만 미달사태를 빚었다.

바로 앞 분양했던 첨단 힐스테이트가 69.29대1(110㎡ B형)~624.74대 1(84㎡ A형)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e편한세상 무등산 아파트(90.94대 1~160대 1), 더샵 광주포레스트(12.25대 1~330대 1), 힐스테이트 광산(23.82대 1~247대 1) 등이 '청약 광풍' 을 기록했던 것과도 차이가 난다.

동구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인구 10만명 회복 뒤 '돌아오는 동구' 로 발돋움할 인구 유입 정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정책인데다, "선교 도시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던 임택 동구청장의 신년사도 빛이 바랜 듯한 모양새다.

동구 안팎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던 선교지구 일대 11만8504㎡를 해제해 아파트를 비롯,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벤처타운 및 벤처배후단지를 조성,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개발을 이끌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높은 청약 경쟁률을 예상하고 묻지마 청약에 나섰다가 '덜컥' 당첨된 청약 신청자들의 경우 아파트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개발 여건을 감안하면 계약을 해야할 지 망설이는 등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동구도 거창하게 내놓을만한 관련 개발 계획이 없는 탓에 시장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다양하다. 우선,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한동안 광주지역 시장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외지인 투자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지 여건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똘똘한 한채' 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반영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교통·생활 등 정주 여건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30명 이상 회사 직장인 '빨간날' 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어
10명 미만 땐 무급휴직 지원금…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달라지는 노동법과 직장인 꿀팁

올해부터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의 노동자는 '빨간날' 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됐다.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과 '직장인 꿀팁' 을 소개했다.

우선, 30명 이상 회사의 직장인은 빨간날(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은 제외)이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넘어 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따른 것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을 포함해 모두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다만,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도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 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직장에서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내년까지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달부터 올해 최저임금도 시급 872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일급(8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6만 9760원이다. 월급 은 182만 2480원(209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30명 이상 사업체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적용대상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확대(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기업별 노동조합의 해고자 등 조합원 자격 인정 등도 변경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탈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XA AIG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OREAN RE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